

보도	2026.6.10.(수) 10:00	배포	2026.6.9.(화)	
담당부서	국제업무국 금융중심지지원팀	책임자	국 장	박정은 (02-3145-7890)
		담당자	팀 장	정수진 (02-3145-7901)

금융감독원, 「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」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6.6.10.(수) 금융감독원(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)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주요 현안 및 애로·건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를 개최
- 동 간담회에는 금융회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 10명이 참석하여 각 사의 해외진출 전략 및 애로·건의사항을 공유

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 개요

- ☑ **일 시** : '26.6.10.(수) 10:00 ~ 11:00
- ☑ **장 소** :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2층 토파즈홀
- ☑ **참석자** : (금융감독원) 이세훈 수석부원장(금융중심지지원센터장) 등 5명
(금융회사) 10개 금융회사 글로벌 담당 임원*
* 지주 3개사, 은행 3개사, 증권 2개사, 생·손보 2개사

2 간담회 주요 내용

-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금리·환율 변동성 확대와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커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

-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전략 전반에 걸쳐 질적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 당부
- 또한 금융회사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미국 및 동남아 국가의 IT 및 자금세탁방지(AML) 감독·검사 및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본점 차원의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을 강조
-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주요 진출국의 규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사무소 등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국 금융당국과 소통하고 있으며
 - 해외 감독당국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와 해외 금융당국 간 직접 소통창구를 추진중임
- 금융회사 참석자들은 해외사업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
 - 동남아 등 주요 진출국 관련 인·허가나 현지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·건의사항을 전달하고
 - 해외 영업 과정에서 파악되는 현지 동향과 주요 이슈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
 - 앞으로 금융당국과 업계 간 소통을 지속 확대하여 해외사업 과정에서 협력과 지원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

3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한편, 실무협의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계획